

문학연구방법으로서의 ‘악의 상징’

박상민*

1. 문학과 악
2. 악의 상징
 - 2-1. 두려움의 경험
 - 2-2. 부당한 합리화
 - 2-3. 자유의 근거
3. 『토지』에 나타난 성적 금기와 결혼 제의
 - 3-1. 인쿠부스와 수쿠부스
 - 3-2. 불륜과 로맨스
4. 금기와 죽음
5. 도덕의 문제

국문요약

이 글의 목적은 문학연구방법으로서의 ‘악의 상징’을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 작품이 악의 부정적 현존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사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과 관련된 금기의 훼손에 주목하였다. 금기의 훼손은 폴 리피르가 악의 일차적 상징으로 본 ‘부정(Stain)’을 의미하는데, 그 배후에는 ‘부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합리화이다.

* 명지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강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을 분석하였다. 이는 『토지』가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하여, 악의 상징에 대한 근대문학적 모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과 관련된 금기의 훼손을 대표하는 인물은 김환이다. 그는 형수를 피어 도망간 근친적 패륜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최참판가의 몰락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작품 전체를 추동하는 악행의 주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환은 '악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품 내내 김환은 고통을 이겨내려 몸부림치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김환은 아버지 김개주와 함께 명백하게 인쿠부스(Incubus)적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품의 서술은 오히려 이들을 미화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불륜에 대한 낭만적 서술과 당사자들의 비극적 죽음. 바로 이 두 요소의 부조화는 금기의 부당한 합리화 기제를 깨뜨리는 것으로 『토지』에 나타난 중요한 악의 상징이다.

주제어

악, 악의 상징, 박경리, 토지, 부정(Stain), 금기, 죽음

1. 문학과 악

이 글의 목적은 문학연구방법으로서의 '악의 상징'을 의미화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에 나타난 악의 상징을 분석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새롭고 심원한 해석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문학 작품이 악의 부정적 현존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사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훌륭한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¹⁾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악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악이란 무엇인

1) 찰스 프레드 엘퍼드, 이만우 옮김,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황금가지, 2004, 267쪽.

가를 정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과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악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정의하려는 시도는 끝없는 개념어들의 연쇄 속에서 자칫 그 의미가 공소(空疎)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악의 의미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악의 상징을 살피는 것과 동일한 작업이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악의 상징 중에서 특히 '금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금기가 '개인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긴장의 핵심에 놓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문학 작품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대중 예술 작품의 단골 소재인 '불륜'의 문제 역시 '악의 상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 보다 풍부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악의 상징'이 모든 종류의 예술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악'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고통'과 '두려움'일 것이다. 이 때 고통이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숭한 제도와 관습들은 모두 고통이나 두려움을 줄이려는 한결같은 시도이다. 하지만 제도와 관습의 뼈대를 이루는 사회적 금기들이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옥죄는 것은 금기의 역설적 측면이다. 인간과 세계에 대해 탐구하는 문학이 이러한 문제에 천착하는 것 역시 당연한 귀결이다. 위대한 문학이 대개 강력한 악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이런 점에서 타당하다. 사회의 질서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최초의 합리성과 생명성과 유연성을 상실하고 화석화되는 속성을 지니는데, 기존의 사회 질서 속에서 악으로 분류되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예찬은 기성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어,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조율하는 사회적 노력의 동력원이 된다.²⁾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작품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문학과 악'에 대한 긴밀한 이해가 일반화되지 않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악의 상징'이 문학연구방법으로서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작품분석의 대상은 박경리의 『토지』이다. 세 차례나 TV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그 밖에도 영화, 만화, 음악극, 청소년용 요약판 등으로 변용되면서 다양한 창구화 효과를 입증한 『토지』는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학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³⁾

구한말의 격동기에서부터 일제 치하의 지난했던 역사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토지』에는 새로운 사회 질서의 수립을 열망하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여 다양한 악의 상징을 보여준다. 비록 간접적으로 서술되기는 했지만, 동학접주 김개주가 윤씨부인을 겁탈한 사건은 작품 전체의 비극을 낳은 씨앗이라 할 수 있다. 이어지는 김환과 별당아씨의 야반도주, 계속되는 겁간과 간음 등의 불륜 모티프는 작품 전체를 수놓은 '얼룩'⁴⁾으로 작품에서 중요한 악의 상징을 이룬다. 또 『토지』에는 살인이나 약탈과 같은 일반적이고 심각한 악행들이 수없이 등장한다. 일제에 의해 자행된 관동 조선인 대학살과 남경 대학살은 이러한 악행의 정점에 위치한다.

이 밖에도 작품의 곳곳에는 미신적인 금기나 설화들이 자주 나온다.

-
- 2) 이남호, 「한국 문학과 악(惡)」, 김우창 외,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110-111쪽.
 - 3) 『토지』의 장르 변용과 창구화 효과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할 것. 박상민, 「『토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문화예술산업」, 『한국문학의 연구』 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405쪽.
 - 4) 리퍼트는 '얼룩(흠)'을 '악'의 미미한 표상이지만 풍요로운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보았다. 폴 리퍼트,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9, 37-40쪽 참조.

이렇게 하면 최치수의 아버지가 노루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영신을 노하게 해 죽었다든지, 최씨 가문의 절손이 굶어죽은 과부의 저주 때문이라든지 등 최씨 가문의 몰락을 설명하려는 출처 불명의 여러 이야기들 역시 작품에 나타난 풍부한 악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미신적 금기나 설화들은 한결같이 '고통'의 원인을 해명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진 '부정(不淨)'과 '금기'들이기 때문이다.⁵⁾ 이처럼 『토지』에는 '악의 서사'가 작품의 전편을 꿰뚫고 있다. '한과 생명의 서사'가 작품의 양각을 이루고 있다면, '선과 악의 서사'는 작품의 음각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⁶⁾ — 이렇게 볼 때에 『토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사적이고 상징적인 악담론을 생산하여 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현존하는 악의 위협을 극복하려는 텍스트이다.

2. 악의 상징

2-1. 두려움의 경험

'악의 상징'이란 넓은 의미에서 '악을 환기시키는 일체의 것들을 말한다. '악'은 실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악에 대한 인식은 상징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악의 상징』을 쓴 리피르에게 '상징'은 복합적이고 충만한 의미를 지닌 언어 대상을 가리킨다. 해석은 이러한 상징이 지시하는 언어적 대상의 실존적 의미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상징을 해석하는 것은 '간혀 있고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경험의 차원을

5) '부정'이나 '금기'가 갖는 악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술하기로 함.

6) 이에 관한 상술은 아래의 줄고를 참조할 것. 박상민, 「『토지』에 나타난 악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19호, 우리문학회, 2006, 402쪽.

여는' 엄숙한 기능이다.7) "상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동물에 있어서 그들은 대상물인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일은 전혀 없고, 다만 '그것'에 직접 반응할 뿐이다."라는 주장은 인간을 사고하게 만드는 핵심 기능이 상징 작용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8) 물론, 직접적 경험이 아니므로 상징 작용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상징 작용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하도록 인도하는 사물들이 이 세계에는 실재하지 않는 단순한 관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물들에 관하여 행동과 감정과 정서 및 신념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류를 범하기가 매우 쉬운 것"이라는 화이트 헤드의 지적은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악'은 '상징'을 통해 인식하게 되는데, 이 때 '상징'은 인간의 고유한 사유 능력이면서 동시에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원천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10) '악'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것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상징 작용의 오류에 기인한다. 하지만 '악'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큰 것은 실제로 '악'의 의미가 상대적이고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악은 발생 당시의 정황, 행위 주체의 동기, 판단 주체의 당파성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가장 비난 받을 만한 악행으로 꼽을 수 있는 '살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방위였거나, 또는 사형수에 대한 형의 집행이었다면 죄를 묻지 않는

7) 폴 리피르, 위의 책, 163쪽.

8) 마광수, 『상징시학』, 청하, 1985, 16쪽.

9) 화이트헤드, 『상징작용 - 그 의미와 효과』, 정연홍 옮김, 서광사, 1989, 17쪽.

10) 리피르와 마광수, 그리고 화이트헤드의 '상징'에 대한 이해는 모두 조금씩 다르다. 화이트헤드의 경우는 '언어' 자체가 상징의 대표 형식이 되지만, 마광수의 경우 지시적 언어는 단순히 '기호'에 불과하다. 리피르에게 상징은 좀더 승격되어 감추어진 의미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이 된다. 이렇듯 상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지만, '상징'이 직접적 경험을 넘어서 고도의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이해를 하고 있다.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악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렇게 악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므로 개념 정의가 어렵고, 또 대단히 상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격이나 특정한 행동에 대해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데에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누군가의 인격이나 특정한 행동을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모종의 결단이 요구된다. 그것은 '악'이 감염력이 있는 두려움의 경험이기 때문에 악에 관한 언급 자체가 일종의 금기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이지만, 고통을 당하기 전부터 이미 경험하게 되는 악에 대한 일차적 감정이다. 악을 두려움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해석한 연구자는 리피르이다. 특히 그는 『악의 상징』에서 악의 일차 상징으로 '부정(Stain)'과 '죄(Sin)'와 '죄과(Guilt)'의 세 차원을 제시했다.¹¹⁾

'죄과'는 한 인격이 느낀 죄의 경험이며 가장 발전된 단계의 것으로서

11) 양명수가 옮긴 『악의 상징』에는 'Stain'과 'Sin'과 'Guilt'가 각각 '흠'과 '죄'와 '허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물건의 깨어지거나 상한 자국'을 뜻하는 '흠'은 '얼룩'이나 '때'를 뜻하는 'Stain'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유죄'를 뜻하는 'Guilt'를 '허물'로 번역한 것 역시 정확한 번역이 아닌 듯하다. 한국해석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리피르와 관련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김영한의 경우 세 용어를 '부정'과 '죄'와 '죄과'로 쓰고 있다. 'Stain'을 '부정'으로 번역하면 그 속에는 '얼룩'이나 '때' 등의 물질적 의미와 함께 '부정 탄다'는 민간신앙적 의미도 함께 있어 적절한 번역이라 생각한다. 'Guilt'를 '죄과'로 번역한 것은 여전히 오역의 소지가 있지만, '허물'보다는 의미가 명확하다. 따라서 리피르의 'Stain'과 'Sin'과 'Guilt'의 역어는 김영한의 번역을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양명수의 번역문을 옮길 때에도 '흠'과 '허물'은 모두 '부정'과 '죄과'로 고치기로 한다. 물론 'Stain'과 'Sin'과 'Guilt'라는 단어 역시 프랑스어의 역어이므로 여전히 오역의 가능성을 안고 있으나, 대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김영한의 번역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내면화되고 개인화된 형태다. 그보다 좀더 앞선 것으로 '죄'가 있다. 죄의 느낌은 개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으로서 신 앞에 선 사람의 현실을 가리킨다. (중략) 그러나 죄도 그것보다 더 근원에 가까운 체험인 '부정'이 극적으로 바뀐 것이다.¹²⁾

'부정'은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계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주체의 윤리적 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죄'는 인격적인 신과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주체의 내부에 있으므로 윤리적 반성을 동반한다. 윤리적 반성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신에게 고백하는 순간 주체는 일종의 멍에를 쓰게 되는데 이 때가 '죄과'의 단계이다.¹³⁾

부정과 죄와 죄과의 세 차원은 실제 체험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중에서 '죄(Sin)'와 '죄과(Guilt)'는 인격화된 신의 존재가 개입된 서구 기독교적 악의 상징이므로 우리의 사유 방식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¹⁴⁾ 따라서 우리 문학에 나타난 악의 상징을 리피르적 개념으로 분류하자면 단지 '부정'과 '죄'의 두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박경리 『토지』의 경우, 작품에 나타난 악의 상징과 리피르의 지적이 잘 일치하는 지점은 '부정'의 차원이다. 물론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에는 '죄'의 차원도 등장한다. 적선을 거부한 최참판가를 저주하며 죽었다는 과부의 이야기, 나이 어린 서희의 시련을 예감하고도 김환과 함께 달아난 별당아씨, 술한 겁간과 살인 등은 모두 분명하게 윤리적 반성을

12) 폴 리피르, 앞의 책, 21쪽.

13) 김영한, 「리피르의 해석학적 현상학」, 『신학사상』 50집, 한국신학연구소, 1985, 604-605쪽.

14) 이에 대해 김용환은 "서구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가 타당성이 있겠지만 동양의 악에 대한 상징체계를 분석함에는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용환, 「리피르의 악의 상징에 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 11집,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2쪽.

요구한다는 점에서 '죄'의 차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토지』에 나타난 '죄'의 차원에는 인격화된 신의 존재가 없다는 점에서 리피르가 지적한 '죄'와 조금 다르다.

'악의 상징'에 대한 리피르의 분류가 『토지』라는 구체적 작품에 나타난 악의 상징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왜 악의 상징을 부정과 죄의 차원에서 다루었느냐에 대한 해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부정'이 어떻게 악의 상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어떻게 악에 대한 이해를 심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리피르가 사용한 '부정'의 개념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2-2. 부당한 합리화

'부정'은 '얼룩' 또는 '더러움'을 의미한다. 리피르에게서 있어 '부정'은 악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상징이다. 그것의 배후에는 '부정탄 데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그걸 씻는 제의'가 자리잡고 있다. '부정'은 '그것이 무슨 물질 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체의 반성을 방해한다. 그것은 얼룩과 같이 번지고 더럽히는 것을 연상시키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리적·육적 실존에 강력한 힘을 행사한다.¹⁵⁾

이렇게 '더러움'이라는 객관적 사건은 접촉을 통해 오염시키는 어떤 물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더럽히는 접촉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정을 통해 주관적 사건이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정(不淨)하다'는 의식과 함께 윤리적 의식으로 나아가는 계기이다.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개입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리피르는 '두려움의

15) 위의 책, 37-38쪽.

원인은 부정에 대한 응보에 있다고 했다. 나아가 '부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생각이 모든 제도, 모든 노력, 모든 법령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다고 했다. 이는 '응보를 매개로 물리적 질서가 윤리적 질서로 둔갑'한 것이다. 즉 '고난이라는 악이 결국 잘못이라는 악과 결부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부인이 간음을 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¹⁶⁾

이 세계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는데, '부정의 상징'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표상이다. 즉 '더러워서 싫었던 기억'을 '고난'의 원인으로 매개짓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 관계'는 '죄라는 윤리 세계와 고난이라는 물리 세계'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합리화는 부당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부당한 합리화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기도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일대기는 이러한 합리화의 부당성에 온 몸으로 맞서 싸운 이야기이다. 욥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는 비운을 맞는다. 사람들은 욥이 무엇인가 남들이 모르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의 진노를 산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시선은 욥을 더욱 힘들게 한다. 죄와 고난 사이의 부당한 합리화로 인한 피해는 비단 욥만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부당한 합리화의 피해자인 동시에 또한 가해자였다.¹⁷⁾

한편, 많은 '부정'의 목록들이 오늘날 악의 상징에서 제외되었다.

16) 위의 책, 41-43쪽.

17) 『토지』의 인물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토지』는 온통 이렇게 부당한 합리화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얽히고 설킨 악의 서사이다.

‘부정인 것’과 ‘우리에게 악인 것’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부정의 목록의 변화는 동기 그 자체의 변화를 가리킨다. 옛날에 부정탄다고 생각했던 행위 중에서 많은 것이 악과 관련없는 것으로 떨어져 나갔다. 윤리적 신에 대한 모독이나 정의의 훼손이나 인격의 존엄성의 훼손 따위만 악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정행위들이 악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것이다.¹⁸⁾

악의 상징에서 부정의 목록들이 제거된 것은 일차적으로 인류의 인식 능력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홍수 피해가 생긴 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신의 진노였지만, 오늘날에는 재난방지 시스템의 오류일 뿐이다. 이처럼 인류는 인식 능력의 발달과 함께 부정의 목록을 악의 상징에서 제외시키면서 스스로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신분제의 폐기나 여성의 권익 향상 등은 이러한 인식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¹⁹⁾

하지만 악의 상징에서 부정의 목록들을 제거하는 것은 한편으로 악의 풍요로운 상상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부정의 세계는 상상력을 통해 철학적인 정화 작업의 바탕이 될 틀을 제공했다. 부정이 무엇인가를 더럽힌 것이라면, 대부분의 제의 형식은 무엇인가를 씻어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물리적 청소’를 뜻하는 카타르시스를 비극의 효용으로 꼽은 것은 비극의 본질이 악의 상징인 ‘부정’을 정화시키는 제의 형식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18) 위의 책, 38쪽.

19) ‘부정’의 목록이 줄어드는 것은 ‘윤리’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에 대해 백종현은 ‘윤리적인 사회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존엄성을 갖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서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은 ‘부정’의 목록을 줄이면서 ‘윤리’를 증대시키는 과정이다. 백종현, 『윤리 개념의 형성』, 철학과 현실사, 2003, 31쪽.

바로 거기서 부정의 주제는 원류가 되는 어떤 문학을 이루어 로고스를 형성한다. 그 로고스가 곧 서양 문화의 논리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것처럼 부정을 그리스 문화를 빌어 읽을 때, 어떤 문학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감정을 교육하게 될 뿐 아니라, 철학의 비철학적 근원을 찾게 된다. 그리스 철학은 신화와 관련하여 이룩되었다. 신화 자체가 부정과 관련된 신앙과 제의에 대한 설명적·서술적 주석이요 해석이다.²⁰⁾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것은 리피르가 '부정과 죄와 죄과'의 세 차원을 발생의 선후 관계에서 기술했을 뿐 결코 발전의 도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정의 상징에서 죄의 상징으로 그리고 다시 죄과의 상징으로 가는 것은 점점 상징의 우주적 뿌리에서 멀어져가는 것이다. (중략) 부정한 것과 성스러운 것은 서로 맞먹는다. (중략) 부정의 상징이 다함 없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우주의 성스러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야릇하고 두려운 모든 것에 잇대어 있기 때문이다.²¹⁾

부정의 상징을 '고난과 죄에 대한 부당한 합리화'라고 밝힌 것과 '우주의 성스러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 것은 서로 대치된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모순되기보다는 '부정'의 상징이 갖고 있는 상반된 두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악의 야누스적 두 얼굴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결국 리피르는 고난과 죄에 대한 부당한 합리화를 거부하면서도, 그 결과 인류가 우주의 성스러움, 즉 영성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고난과 죄가 무관함을

20) 리피르, 앞의 책, 50쪽.

21) 위의 책, 25쪽.

밝히는 것은 악과 투쟁하면서 자유를 쟁취한 인류의 역사이지만, 그러한 자유의 대가는 다시 영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²²⁾

2-3. 자유의 근거

악의 개념이 그토록 모호하고 또 악을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경험 이라면 악은 말해지지 않는 것, 즉 봉인되는 것이 최선이 방책일 것이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이나 '판도라의 상자' 등의 신화는 악을 봉인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는 금기는 이미 애초부터 인간에게 금기를 어길 수 있는 자유를 전제한 것이고, 이 자유는 바로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악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선은 삶에 의미를 주며 그럼으로써 삶의 우연성을 견뎌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악도 금지된 쾌락을 준다는 점에서는 삶의 우연성을 극복하게 하는 한 형태이다. (중략) 악 속에는 악을 범하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종의 자율적 힘 같은 것이 들어 있다.²³⁾

위 인용문은 악을 선과의 대립선상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유'라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야누스의 두 얼굴로, 금지된 쾌락을 통해 삶의 우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선과 악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악의 심각성을 무화시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선과 악을 단순한 대립 관계로 놓고, 선의 승리를 낙관하며 악을 증오한

22) 리퍼트의 이러한 견해는 '악'에 대한 『토지』의 서술태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술하겠다.

23) 안네마리 피퍼, 이재황 역, 『선과 악』, 이끝리오, 2002, 188쪽.

다고 해서 현존하는 악의 위협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것도 비합리적인 낙관론이다.

이와 관련해서 재소자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악'에 대해 실증적이고 정신분석적인 연구를 한 찰스 프레드 엘퍼드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악을 '적의에 찬 파괴를 향한 충동'²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악은 역사 속에서 숭한 대량학살로 나타났고, 인류는 이러한 악의 부정적 현존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다. 나아가 그는 '두려움'의 감정이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인간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악의 가해자가 되고자 하는 심리기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악은 수동성이라는 끔찍한 무력감과 파멸의 운명에 직면할 때 이로 인해 마비당하는 공포를 회피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희생자가 아니라 악행자가 되는 편을 택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고 느낀다.²⁵⁾

이러한 심리기제는 나찌 치하에서 대량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을 무력으로 침공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인들의 유대인 대량 학살과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무력 침공은 결국 선과 악의 명확한 이분법이라는 동일한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 주체를 선으로, 타자를 악으로 규정하게 한다. 이 때 선의 이름으로 악을 징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된다. 이처럼 선과 악의 명확한 이분법은 더욱 심대한 악의 현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

24) 엘퍼드, 앞의 책, 263쪽.

25) 위의 책, 54-55쪽.

험하다.

악은 고통, 유기, 무력감을 타자들에게 부과하므로 악행자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으려 하며, 타자에게 두려움을 부과하여 스스로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가학증의 속성을 지닌다. 이렇게 악의 원인을 '두려움'으로 파악한 엘퍼드는 그 해결책으로 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재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일반인보다 상상력이 부족하고 악과 관련된 경험을 말로 표현할 때 일반인보다 더 어려워한다고 지적하면서 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악행을 피할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즉 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타자들과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악을 이해하고, 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악의 부정적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악에 관한 위와 같은 입장은 '문학과 악'을 분석하는 이 글의 중요한 전제이다. '악'이 문학의 주제가 된다는 것은 이 세계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합리성의 틀로 재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선과 악이 동일한 뿌리임을 망각한 채, 악을 제거하여 선의 승리를 얻고자 하는 무리한 시도이다. 악이 없으면 선도 없다. 결국 선과 악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금기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과 악은 함께 있었으며, 신은 금기의 위반 여부를 인간에게 맡김으로써 '자유'라는 선물을 준 것이다.²⁶⁾ 문학이 '악'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러한 '자유'의 드라마를 해명하는 것이다. 다양한 악의 상징에 대한 경험은 악의 결과

26) 튀디거 자프란스크, 광정연 역,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문예출판사, 1996, 25쪽.

이자 원인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삶의 균형을 줄 수 있는 에너지인 것이다.

3. 『토지』에 나타난 성적 금기와 결혼 제의

3-1. 인쿠부스와 수쿠부스

부정의 영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성과 관련된 금기의 훼손이다. 여기에는 성교가 접촉을 통해 부정한 '물질'을 옮긴다는 막연한 의식이 들어 있다. 예수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건은 남자의 정액을 부정한 것으로 보려는 의식과 맞닿아 있다. 여성이 생리를 할 때마다 자궁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자궁이 부정하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원죄의식 속에 여성의 자궁이 부정하다는 의식이 있으리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에 결혼식은 성교의 금기를 거두어들이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주려는 일종의 제의이다. 이 때 결혼제의를 거치지 않은 모든 성교는 금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토지』의 주요인물들 중에서 정상적인 결혼제의를 거치고 따뜻한 부부애를 나누는 경우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최참판가의 당주인 최치수와 그의 아내 별당아씨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최치수는, 불륜에 의한 죄의식으로 냉정하고 엄격해진 어머니 윤씨부인에게 반발하여 신경질적이고 잔인하고 방약무인하게 성장한다. 조준구와 어울려 자학적으로 여자들을 상대하던 그는 결국 생식능력을 잃고 만다. 최치수와 부부로서의 교감을 갖지 못했던 별당아씨는 윤씨부인의 도움으로 시동생뻘인 김환과 함께 아반도주를 하고, 이로써 최참판가의 비운은 본격화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최치수와 별당아씨의 성적 타락을 도운 조준구와 김환이 중세 서양의 두 악마 '수쿠부스(Succubus)'와 '인쿠부스(Incubus)'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꿈 속에 찾아온다고 해서 흔히 '몽마(夢魔)'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두 악마는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난다고 믿어지는데, 두 악마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수쿠부스는 남성에게 나타나 그의 정기를 뺏는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정액을 빼앗거나 심한 경우 피를 빼앗기도 하는데, 이 때 남자는 성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인쿠부스는 매우 진하고 뜨거운, 심지어는 알콜 성분도 다량 포함되어 있는 정액을 통해 여성의 성적 쾌락을 극대화시켜준다.²⁷⁾ 최치수는 조준구와 함께 사창가를 돌아다녔고 그 결과 성기능을 잃었다. 또 조준구는 최치수를 살해하려는 김평산의 음모를 미리 눈치 채고도 오히려 은근히 그를 부추겼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조준구의 존재는 중세 서양의 '수쿠부스'와 많이 닮았다. 그리고 어느날 문득 최씨 집안에 하인으로 들어와 별당아씨를 피어 달아난 김환 역시 여성에게 성적 쾌락을 알게 해주는 '인쿠부스'를 닮았다.

수쿠부스와 인쿠부스의 이야기는 남녀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시각을 잘 보여준다. '악'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할 때에, 두 몽마에 대한 두려움은 남녀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즉 남성은 (너무 잦은, 또는 결혼제의를 거치지 않은 성관계 때문에) 자신의 성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반하여, 여성은 (역시 너무 잦은, 또는 결혼제의를 거치지 않은 성관계 때문에) 성적 쾌락을 탐닉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성에 관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억압을 받아 왔으며,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오늘날까지도 여성의 순결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억압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성에 관한 터부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27)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동연, 1999, 231-232쪽.

가를 반증하고 있다.

3-2. 불륜과 로맨스

『토지』에서 성과 관련된 금기의 훼손을 대표하는 인물은 김환이다. 그는 형수를 꺾어 도망간 근친적 패륜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최참판가의 몰락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작품 전체를 추동하는 악행의 주요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준구와 달리 김환은 '악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작품 내내 김환은 고통을 이겨내려 몸부림치는 연민의 대상일 뿐이다.

김환의 첫 번째 슬픔은 출생의 비밀에서 연유한다. 요절한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천은사에 가서 백일기도 중이던 윤씨부인을 절의 주지인 우관 스님의 동생이자 동학의 접주였던 김개주가 겁탈하여 생긴 자식이 김환이다. 요절한 남편의 명복을 비는 숭고한 종교 의식 중에 자행된 이 사건은 당대의 세계관으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의 세계관으로도 도저히 용서받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사건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심원한 '악행'이며 '충격'이다. 『토지』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건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건 이후 윤씨부인의 성격은 더욱 차가워지고, 이로 인해 아들 최치수 역시 신경질적이고 잔인한 인물로 성장한다. 최치수의 성적 방종, 이로 인한 절손, 그리고 조준구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토지』의 모든 비운은 김개주의 겁탈 사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는 비단 최참판가의 가족사적 비극만이 아니고, 최참판가의 소작농으로 살아가는 평사리 주민 전체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김개주가 동학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그가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와 일본의 침탈이라는 구한말의 역사적 사건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김개주의 겁탈 사건은 『토지』에 나타나

는 모든 고통의 씨앗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작품에서 전혀 서사화되지 않고 단지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사람에게 의해 가끔씩 회상될 뿐이다. 사건이 제대로 서사화되지 않은 것은 “달의 아름다움은 달빛이 새어나오는 구름을 그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홍운탁월(烘雲拓月)’의 동양화 기법을 연상시키는 『토지』의 독특한 서술방식에서 기인한다.²⁸⁾ 즉 김개주와 윤씨부인의 관계가 작품 전체에서 갖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한 리얼한 서술은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직접적 장면화를 피한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개주에 대한 제한된 정보들이 그를 낭만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용서하시요. 살아주어서 고맙소.”

윤씨 부인의 눈길이 사나이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소년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장대한 몸집이 부드럽게, 아니 가냘프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환이가, 부인의 아들이 현연(軒然) 장부가 되었소.”

사나이의 목소리는 잠시 잠겼다.

“그 말을 내 입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소.” (1:365)

‘김개주’는 『토지』의 후반부까지 간헐적으로 총 71회 언급되지만, ‘구름으로 달을 가리듯이’ 단지 서술자 또는 작중인물들의 기억이나 전언을 통해 등장할 뿐이며, 구체적 행위나 언행이 직접 묘사되는 것은 단 두 곳 뿐이다. 윤씨부인의 회상 부분인 위 인용문은 그런 점에서 감추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김개주의 진면목이 부득이하게 드러난 부분이라 할

28) 『토지』의 서술적 특징으로 이상진은 김성탄이 제시한 동양의 묘사기법인 ‘묘처부전(妙處不傳)’의 법을 말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비슷한 분석이라 생각한다. 이상진, 앞의 책, 78쪽 참조.

수 있다. 이렇게 김개주의 언행을 직접 서술한 것은 그의 명백한 악행을 변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소년같은 미소를 머금'었다는 윤씨부인의 회상은 김개주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증오와 원망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려준다. 윤씨부인의 이러한 심리상태는 김개주가 전주감영에서 효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서술자의 보충설명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²⁹⁾

윤씨부인이 낳고 버린 아들 환이가 김개주 밑에서 헌헌장부(軒軒丈夫)로 컸다는 점에서 보면, 김개주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윤씨부인에 대한 김개주의 감정이 저급한 욕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다. 이러한 정황은 아래 인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윤씨 부인을 범했던 개주는 대노한 형에게 말했다.
"지아비 잃은 여인을 사모하였기로, 어찌 죄가 된다 하시오. 하늘이 육신을 주었거늘, 어찌 육신을 거역하라 하시오."
창백하게 웃었던 사나이는 그러나 산을 떠날 때 원한의 눈물을 뿌렸던 것이다.(2:24)

이처럼 명명백백한 김개주의 악행은 작품이 전개되면서 점차 '불륜'에서 '로맨스'로 격상된다. 김개주의 악행을 인간사의 운명적 고난으로 보고, 이를 감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토지』 전체의 주제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개주와 윤씨부인의 불륜에 대한 작품의 독특한 시각은 김환과 별당 아씨의 근친적 도피행각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윤씨부인이 청상이었

29) 1권 366쪽.

던 것에 비해 별당아씨는 남편이 살아 있고, 게다가 남편 최치수가 김환의 이부형(異父兄)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둘의 불륜은 더욱 심각한 과장을 부릴 수 있다. 실제로 이 둘의 도피 이후 최참판가와 평사리 마을의 비운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김개주에 의해 심어진 비극의 씨앗은 그의 아들 김환에 의해 싹을 틔웠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땅 속에 심어진 씨앗이 감추어져 있는 데에 반하여, 싹이 튼 것은 드러났음을 뜻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김개주와 윤씨부인의 관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지만, 김환과 별당아씨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불륜'을 '로맨스'로 격상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김환과 별당아씨의 관계는 지고한 로맨스로 그려졌다. 재상가 부인과 사기장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³⁰⁾는 이 둘의 로맨스를 위한 알리바이 중의 하나이다. 별당아씨의 존재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모호하고 아련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김개주를 신비화시킨 것과 동일한 서술방식이며 이 역시 불륜을 로맨스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상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김환, 또는 김개주는 명백하게 인쿠부스적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작품의 서술은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는 쪽으로 모아진다. 이는 '악'에 대한 작품의 중요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개주와 김환이 금기를 깨뜨린 것은, 금기의 부정성을 해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30) 1권 80-81쪽 참조. 재상가 부인이 사기장수를 따라 야반도주를 했는데, 알고보니 전생의 인연 때문이었다라는 내용. 마을 아낙들의 대화 중에 함안댁의 입을 통해 전달된다.

4. 금기와 죽음

금기는 사회의 유지를 위한 집단의 지혜라 할 수 있다. 금기의 위반이 잦아지면 사회는 무질서해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적 금기는 위반시에 제재가 따른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 사회는 금기를 지켜나간다. 하지만 '사회적 유지' 또는 '집단의 지혜'라는 표현 속에는 특정한 집단 주체가 개입하게 되며,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개인이나 집단은 배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회적 금기들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피지배층보다는 지배층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금기의 당파적 측면을 증명한다. 또 애초에 금기의 영역에 속했던 것들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더 이상 금기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도덕적 관념들이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금기의 역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의 양가성은 선과 악에 대한 생각, 즉 도덕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선과 악에 대한 각기 다른 믿음과 해석이 서로 투쟁하면서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한다.

여기서 기억해 둘 점은 금기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 제도'는 제재의 가장 일반적 형식이다. 그 중에서 형벌제도는 개별적 금기사항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식을 규율하며, 그 정점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제재'는 그 자체로 금기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 규율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반과 제재의 인과관계'를 학습시키는 기능을 한다. 인과관계의 학습은 종교적 신화나 권선징악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학습된다. 기독교의 선악과 사건을 예로 들자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는 것은 금기이며, 이를 위반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³¹⁾ 이런 과정을 거쳐 금기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생각은 거

의 모든 시대, 모든 사회에서 일종의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경험은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양심' 또는 '도덕관념'으로 이어진다. 이는 금기의 위반에 대한 직접적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에서 악의 상징인 '부정(不淨)'이 '고난과 죄에 대한 부당한 합리화'라고 지적한 것과 동일한 메카니즘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의식은 금기의 보수적 측면을 강화시켜 역사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한다. 『토지』에서 김개주와 윤씨부인, 그리고 김환과 별당아씨의 불륜이 미화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금기의 부당한 합리화 기제를 깨뜨리는 것이다.

'죽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다시 논해 보자. 『토지』에서 김개주와 윤씨부인, 그리고 김환과 별당아씨는 모두 천수를 누리지 못한다. 김개주와 김환은 국가권력에 의해, 윤씨부인과 별당아씨는 질병으로 인해 죽는다. 허구적 문학 작품에서 이들이 모두 죽는다는 설정은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사회적 금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천벌을 받은 것인가?³²⁾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이들의 불륜에 대한 낭만적 서술 태도와 맞지 않는다. 김환과 별당아씨의 러브 스토리는 별당아씨가 일찍 병들어 죽지만 앓았으면 행복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불륜에 대한 낭만적 서술과 당사자들의 비극적 죽음. 바로 이 두 요소의 부조화는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실존인물인 동학군 장수 김개남을 모델로 한 김개주는 동학난이 진압된 후 측근의 밀고로 잡혀 전주 감영에서 효수된다. 그의 죽음은 측근의

31)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16-17.

32) 실제로 이상진은 "윤씨부인은 불륜의 대가로 하늘이 내린 벌을 받았고, 김개주 역시 그 대가로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라고 했다. 이상진, 앞의 책, 90쪽.

밀고로 관군에게 잡혔기 때문이며, 그 배후에는 동학혁명의 실패가 있다. 그의 아들 김환은 동료인 지삼만의 밀고로 체포되었다가 진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한다. 김환의 죽음 역시 측근의 밀고 때문이다. 그 배후에 삶에 대한 허무, 별당아씨에 대한 그리움, 조직의 비밀 유지 등의 원인이 있으리라 추론할 수는 있지만, 그의 죽음이 스스로 지은 도덕적 죄의 대가라고는 보기 어렵다. 윤씨부인과 별당아씨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이다. 작품 속에서 이들의 죽음이 불륜의 결과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들의 불륜과 죽음에는 단지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들의 불륜행각은 심지어 가장 '아름다운 일'로 기억되어 길상과 서희의 결합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어진다.

어릴 때부터 넌 구천이 그 사람을 늘 부러워했다. 천상의 선관(仙官)이 하계에 하강해온 것처럼, 늘 그 사람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했다. 아름다운 별당아씨를 데리고 도망간 것을 이 세상에서 젤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했었다. 너는 서희를 그런 꿈으로 바라보아왔다.(4:398)

반상의 차별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오늘날, 길상과 서희의 결합은 아무 문제가 없는, 축복할 만한 선남선녀의 결합이다. 그러나 이 둘의 결합은 김개주와 윤씨부인, 그리고 김환과 별당아씨의 결합과 서로 닮았다. 우선 남녀의 신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김환과 길상이 최참판가의 하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결합은 당대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세 남자와 세 여자가 모두 최씨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소 비현실적이기까지 한 비범함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에서도 이들 세 쌍은 서로 닮았다. 물론 차이점도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길상과 서희의 결합이 '합법적'이라는 데에 있다. 김개주와 윤씨부인의 결합이 땅에 감추어진 '씨앗'이고, 김환과 별당아씨의

결합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쌍'이라면, 길상과 서희의 결합은 합법적으로 세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꽃'에 비유할 수 있다. '쌍'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세 쌍의 결합은 불륜에서 로맨스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발전하는 연속적 관계이다.

이처럼 작품은 반상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남녀의 로맨스를 시종 일관되게 반복하며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그들의 불륜이 더 이상 지탄할 것이 못 된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따라서 김개주와 윤씨부인, 김환과 별당아씨의 죽음을 금기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작품은 김환과 별당아씨의 지고지순한 로맨스를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죽음과 부정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김개주와 윤씨부인, 김환과 별당아씨의 불륜과 고난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갖는다. 일차적으로 이것은 단지 선후관계일 뿐이다. 이 둘의 선후관계를 인과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선악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적 독법에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불륜과 고난은 또한 삶의 현묘한 이치를 드러내는 이차적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들 인물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막중한 고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 운명에 대한 인물들의 의식은 수동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신비함에 대한 외경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륜과 고난의 인과성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움직이는 운명의 힘을 감내해 나간 것이다. 이 때 '불륜'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 불륜과 고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고양시킨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리피르는 '부정(不淨)의 상징이 다함 없고 결코 없어지지 않는 우주의 성스러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³³⁾고 지적한 것이다.

5. 도덕의 문제

악을 누그러뜨리거나 해소하는 방식에 대한 해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악에 관해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타자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악과 관련한 실제적 변수는 문화이다. 이는 문화가 대중에게 그들의 파멸적 운명을 납득시킬 수 있는 서사적이고 상징적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즉, 악을 누그러뜨리거나 해소하는 방식은 악의 부정적 현존을 근절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긍정적 현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악의 파괴적이고 가공할 힘과 개인의 실존적 삶을 지탱하는 힘 사이의 감정적 균형을 찾는 일이다.³⁴⁾

부당한 고난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불행에 대한 설익은 합리화는 무너진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악을 당하는 것 사이의 즉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³⁵⁾ 불륜을 '부정(不淨)'으로 보고 이를 '악으로 연결짓는 것은 물리 세계와 윤리 세계를 연결시키는 합리화 기제이다. <토지>는 바로 이 지점을 서사의 출발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는 이를 부정(否定)하고 있다. 김개주와 윤씨부인, 김환과 별당아씨의 불륜은 그들의 '자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 사회의 개인이 더 많은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악의 상징과 조우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과 주변인물들이 보여주는 불륜과 고난의 이야기는 이러한 악의 상징에 대한 정밀한 서사화인 것이다.

문학은 악에 대한 상징적 서술을 통해 선악 판단의 지평을 확장하거나 또는 협소하게 만든다. 확장한다는 것은 자유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고,

33) 리퍼트, 앞의 책, 25쪽

34) 찰스 프레드 엘퍼드, 앞의 책, 267쪽, 325쪽.

35) 리퍼트, 앞의 책, 44쪽.

협소하게 만드는 것은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선악 판단의 지평을 확장시켜야 한다. 고전문학의 권선징악적 구성은 이런 의미에서 전근대적이다. 현대의 많은 대중소설들 역시 고전적 권선징악의 패러다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토지』는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를 계속 유보하고 또 의심하면서도, 끊임없이 악의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악의 상징에 대한 근대문학적 모범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

K C I

참고문헌

- 박경리, 『토지』 1-16권, 솔출판사, 1994.
- 폴 리피르, 양명수 역, 『악의 상징』, 문학과 지성사, 1999.
- 찰스 프레드 엘퍼드, 이만우 역, 『인간은 왜 악에 굴복하는가』, 황금가지, 2004.
- 백중현, 『윤리 개념의 형성』, 철학과현실사, 2003.
- 안네마리 피퍼, 『선과 악』, 이재황 옮김, 이끌리오, 2002.
- 뤼디거 자프란스크, 곽정연 역, 『악 또는 자유의 드라마』, 문예출판사, 1996.
- 이경덕, 『신화로 보는 악과 악마』, 동연, 1999.
- 이남호, 「한국 문학과 악(惡)」, 김우창 외,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마광수, 『상징시학』, 청하, 1985.
- 화이트헤드, 정연홍 역, 『상징작용 - 그 의미와 효과』, 서광사, 1989.
- 이상진, 「박경리의 『토지』 연구」, 연세대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1998.
- 김영환, 「리피르의 해석학적 현상학」, 『신학사상』 50집, 한국신학연구소, 1985.
- 김용환, 「리피르의 악의 상징에 관한 연구」, 『호서문화연구』 11집,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 박상민, 「『토지』에 나타난 악의 양상」, 『우리문학연구』 19호, 우리문학회, 2006.



'The Symbol of Evil' as a Method of Literary Study

Park Sang-Min

This thesis deals with 'the Symbol of Evil' as a Method of Literary Study. The main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a literary works is a useful device to perceive the negative existence of evil by providing narrative and symbolic resources. In that sense, this thesis analyzes the destruction of sex-related taboo. Destroying taboo represents the 'Stain' that Paul Ricoeur saw as the first symbol of evil. His perspective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ny stain will pay the price eventually. However, it is an unreasonable justification from examining the agony to avoid it.

On the bases of this discuss, this thesis research for 'the symbol of Evil' in Park Kyung-Ni's *Toji*(土地). Because *Toji*(土地) shows a model of 'the symbol of Evil' on modern literary narrative. The main character that destroys sex-related taboo is Kim Hwan. He lured his sister-in-law and ran away, and the catastrophe of Choichampan Family started from that incident. Kim Hwan is the center of obscene behaviors in this book, but he does not have any image of a villain. He is only a sympathetic character that struggles to overcome the pain. Even though he plays a role of diabolic incubus with his father, Kim Gae-Ju, the narrator embellishes him. The conflict between the romantic description of adultery and the tragic death is the most important symbol of evil in *Toji*(土地), which demolishes the

erroneous justification of taboo.

Key Words

evil, symbol of evil, Park Kyung-Ni, Toji, stain, taboo, death

* 위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되어,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K C I